

AIR Trends In Perspective
 2020년 11월 30일(제19호)

같이 웃고 같이 살고 GO GO 펫(Pet)밀레

Points

오늘의 해시태그

#고령화 사회 #반려동물 급증 #오늘의 반려동물 #펫 휴머니제이션 # 인식 변화

- 점점 감소하는 가족 인원수에 의해 많은 환경이 바뀌면서 가족처럼 느껴지는 반려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
- 펫 휴머니제이션(Pet Humanization)을 느끼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면서 사료, 의약품, 백신 등 많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을 선진국은 많이 투자하기 추세
-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 사회에서 나타나는 반려동물의 영향과 중요성
-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임에 따라 반려동물은 많은 노인에게 정신적 자아와 사회적 지지역할을 할 수 있게 영향을 끼침

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즈아! 외치는 강릉시와 이에 대한 인식 및 양립 의견에 대한 대책 필요

- 동물사랑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관련한 다양한 산업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반려동물이 보호받는 친화도시로의 변화를 꾀하는 강릉시
- 강릉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존 축산과를 동물정책과로 변경 및 1개 담당을 증설해서 동물 복지 정책을 시행
- 반려동물 시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은 증가했지만 부산, 대구 등을 보면 시설 추진에서는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반려동물 시설이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짐
-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친화도시는 특정 장소에 반려동물 관련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그 외 대부분의 사유지는 노펫(No-Pet) 존이 많아 노펫존에 대한 해결 대책 필요

펫밀리 시대,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을 위한 첫 단계, 도시 속 반려동물 문제 무시는 노노(NONO)해

- 반려동물 양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56.3%가 인지 부족, 반려동물 관련 이슈에 대해 72.5%가 인식 부족인 상황으로 반려동물 관심도와 인식 향상 필요
-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나선 강릉시는 “펫밀레”의 뜻과 같이 반려동물을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함
-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용품이나 사료 등을 전시하고 업체 관계자들 간의 교섭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펫 박람회를 활발하게 개최

세상의 유일한 기쁨은
 시작하는 것이다.
 - 체사레 파베세 -

오늘의 해시태그

#고령화 사회 #반려동물 급증 #오늘의 반려동물 #펫 휴머니제이션 # 인식 변화

펫 휴머니제이션(Pet Humanization)이란 반려동물을 동물을 넘어서 인간처럼 대하고 보살피는 트렌드 -반려동물 지식정보 채널 비마이펫-

- 점점 감소하는 가족 인원수에 의해 많은 환경이 바뀌면서 가족처럼 느껴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
-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족의 빈 자리를 채워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
-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택근무의 확대로 자택 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
- 현재 우리나라는 동물 복지 문제가 계속 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, 관련 산업의 제도적인 관리와 지원 체계가 미흡한 단계
- 펫 휴머니제이션(Pet Humanization)을 느끼는 사람이 점차 증가하면서 사료, 의약품, 백신 등 많은 반려동물 관련 산업들을 선진국은 많이 투자하기 추세
-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현 사회에서 나타나는 반려동물의 영향과 중요성
-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며 신체활동 및 정신건강에 도움을 줌
-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임에 따라 반려동물은 많은 노인에게 정신적 자아와 사회적 지지역할을 할 수 있게 영향을 끼침
-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산업인 애견미용, 애견 호텔 등이 등장하여 다양한 직종들이 생겨나 취업 시장에 더욱 다양한 일자리 증대
-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소중히 여기며 펫 용품, 애견 옷, 애견 샴푸, 사료, 간식 등 여러 반려 용품들을 구매하여 경제 소비가 증가

<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 전망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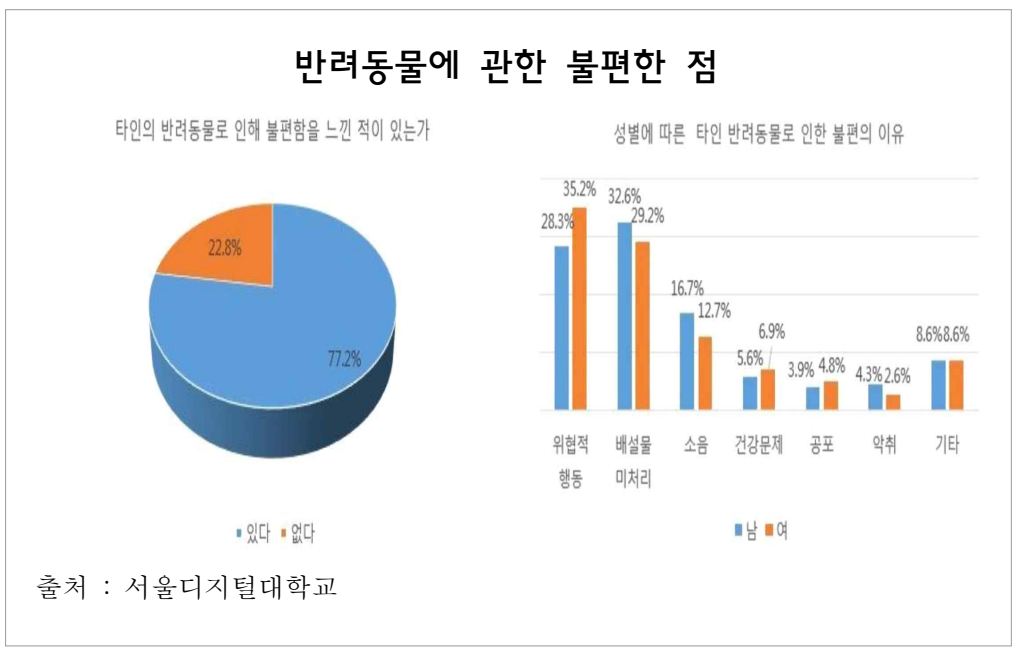
<반려동물 산업 규모>



출처: 한국농촌연구원, America Pet Products Association

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가즈아! 외치는 강릉시와 이에 대한 인식 및 양립 의견에 대한 대책 필요

- 동물사랑센터 건립과 반려동물 관련한 다양한 산업 및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반려동물이 보호받는 친화도시로의 변화를 꾀하는 강릉시
 - 유기 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사랑센터가 2020년 11월 완공 예정에 있으며, 반려동물 지원센터 신축 공사 등을 통해 강릉시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게 됨
 - 강릉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존 축산과를 동물정책과로 변경 및 1개 담당을 증설해서 동물 복지 정책을 시행
 - 기존 40마리까지만 수용 가능했던 동물 수는 120마리까지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그에 따른 유기 동물 보호 시설과 진료 처치실 등을 갖추고, 전문 직원들이 관리에 나섬
 - 센터가 신축되면 반려동물 체형학습장, 교육 세미나실을 비롯한 자격증 교육, 청년 창업 지원, 전시관 등 교육 문화시설과 반려동물 클리닉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
-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인식 및 친화 도시 구성에 대한 양립 의견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방향
 - 반려동물 시설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은 증가했지만 부산, 대구 등을 보면 시설 추진에서는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 반려동물 시설이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짐
 - 부산의 반려동물 친화 도시 구성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볼 때 시설이 생기고 난 후 냄새, 털 날림, 소음 등을 문제로 삼음
 - 동물을 물질적 수단, 혐오와 기피의 대상,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과 공생에 관한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발생
 -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친화도시는 특정 장소에 반려동물 관련 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그 외 대부분의 사유지는 노펫(No-Pet) 존이 많아 노펫존에 대한 해결 대책 필요



펫밀리 시대, 슬기로운 반려동물 생활을 위한 첫 단계, 도시 속 반려동물 문제 무시는 노노(NONO)해

“펫밀레”란
반려동물과 인간이
영원히 행복한
삶을 살기를
바라는 의미에서
반려동물의 “PET”과
계속해서 같이라는
뜻의
라틴어 “씨밀레”를
합성한 신조어
-리서치팀 에어-

- 반려동물 보유 가구의 증가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어 정책적 대응이 요구
- 설문을 통하여 응답자의 73.7% 이상이 반려동물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다고 생각함
-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 관련 부정적인 영향력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어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
- 대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한 해 동안 전체 유기동물 수는 약 11만 8897마리로 기록됨
- 따라서 다양한 반려동물 문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동물보호단체 및 동물 복지시설 활성화 정책이 필요
-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넘어 펫밀리 시대, 우리는 원하는 강릉시와 반려동물 문화 센터의 방향성
-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및 스타트업 지원 등 강릉시의 반려동물 친화도시 정책에 92.5%가 찬성하고 있음
- 반려동물 양육시설에서 운동장이나 산책로 같은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는 반려동물만의 휴식공간 제공
-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용품이나 사료 등을 전시하고 업체 관계자들 간의 교섭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펫 박람회를 활발하게 개최
-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나선 강릉시는 “펫밀레”의 뜻과 같이 반려동물을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야 함

발행	국립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·부동산학과 리서치팀 에어(AIR)
참여집필진	리서치팀 에어(AIR)
주소	강릉시 죽헌길 7 도시계획·부동산학과
인스타그램	@gwnu_air
자료문의	033-640-2199 gwnu_air@naver.com

AIR TIP은 대학생의 시각에서
강릉시의 동향과 이슈를
바라 본 정책 자료입니다.

